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3호 불국사청운교백운교



청운교 백운교

문덕수

청운교 백운교를 건너 너의 뜰, 두 손 모을이거나
날개 펴고 싶은 청운교 흥예문 돌사다리 열일곱
그 사다리 받침 백운교 돌사다리 열여섯 계단
속세의 흙밭로 밟으니 두렵네
하얗은 벌레 한 점 머무는지 삼가면서
다듬고 갈고 닦아놓은 이 맑음 이 높이
조심스런 내 발걸음만 오르락내리락 하네

청운교 건너 잠시 숨 고르고
올라온 길 굽어보니 가파르고
돌아서 오를 길 우러러 보니

도리천 迦利天 달디단 향내 문득 머리 위에 쏘네
백운교에 다시 첫발 올려 내 삶 다잡으니
저 아슬한 자하문 비로소 열리고
다보탑 석가탑이 뿌려놓은 꽃길도 보이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문덕수 시인은... 경남 함안 출생. 195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황홀> <새벽바다> 등.

선거법 · 산중총회법 등 제개정 무산

조계종 제189회 임시중앙총회, 사찰법 · 승려법만 통과

조계종 제189회 임시중앙총회가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법 등 주요 안건들 대부분을 이월·폐기한 채 폐회했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는 3월 27~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첫날 81명 중 60명이 출석한 이번 총회는 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제정안의 통과와 중국 정부의 티벳 탄압 중지·탈북자 강제복송 중지 촉구 등이 조미의 관심사였다.

총회는 이외에도 산중총회법·사찰부동산관리법·승려법·사찰법·범인법 개정안 등 종헌종법 제정안 심의와 원로위원·초심호계위원·법규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과 인사심의위원특별위원·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 보선의 선 등 인사 심의, 불기2556년도 중앙총무기관 결산 승인 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총회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에서 “종교가 세상 따라간다고 말한다. 투명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조류 읽어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 빚낸 것”이라며 “종단은 종단 재정의 건과 인사, 선거제도와 수행풍토의 질적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중앙총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입법활동에 종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보선 스님은 “이번 총회에서 결산 등 각종 법안 정책에 대해 지혜롭게 논의해 합의 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는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으로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선거공영제 도입을 비롯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 내용을 강화한 산중총회법 개정을 종단 현안관련 긴급간담회에서 총회에 요청했다. ‘선거법 제정안’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해 종도들이 이해하는 원만한 대안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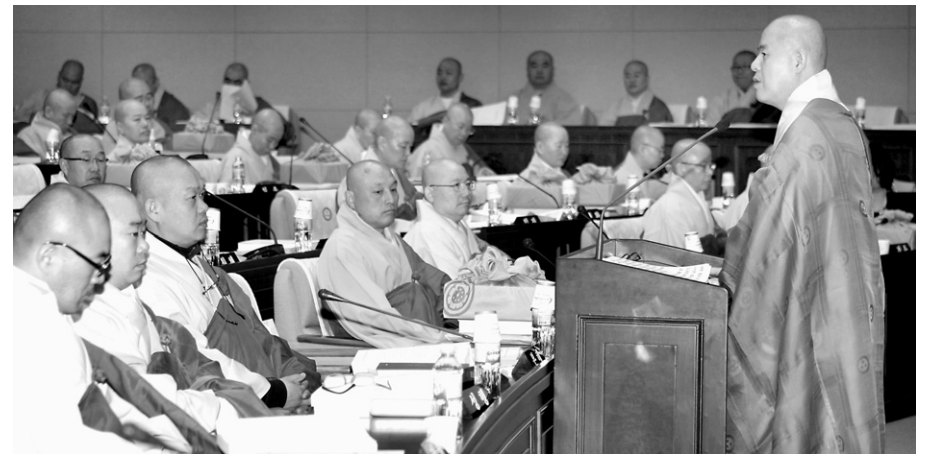
28일 종정주대식 등을 이유로 휴회했던 총회는 29일 오전 10시 제189회 임시회를 속개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 표결했다. 투표 결과 56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4명으로 제적의원 2/3를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종헌 개정안은 조계종 종정 원로위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 자격을 법제와 승남 제남에서 법제로만 규정하고, 교구총회 강화와 징계·변상 등 조항을 신설해 삼보정재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9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지난 회기이월된 ‘사찰부동산 관리법’이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투표에 부쳐 찬성 16표, 폐기 24표로 폐기됐다.

사찰부동산 관리법은 종단 토지처분금을 총무원으로 모아서 집중투자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종회와 본사주지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자는 법안이다.

법안을 제출한 일문 스님은 표결에 앞서 “종단지도자연수에서 진각종, 천태종을 둘러 본 것은 재정통합의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것이다. 현재 종단은 각 본사 임장만 강조하다보니 재정능력이 모두 쪼개져서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다. 이를 중앙서 관리 투자해 짓자는 것이다. 총무원장 전철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토록 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7일 제189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선거법·산중총회법 개정안 등을 원만한 협의해 달라고 의원스님들에게 당부했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교구총회 강화 등 담긴 종헌 부결 선거법 개정안 등 다수법안 이월 중 티벳탄압 중단 등 성명 채택

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는 승려법·사찰법 개정안 심사해 만장일치로 통과 후 나머지 법안의 심의를 조정해 뒤로 미뤘다.

개정된 승려법은 2011년 10월 개정된 승려법이 공포되기 전 승려분신신고 미필자를 구제하는 결과조치를 담고 있다. 사찰법 개정안은 창건주 권리를 1회만 승계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이 부결된 종헌과 관련한 산중총회법은 폐기됐다.

총회에서는 비구니스님들의 종무행정 진출의 벽이 여전히 높음이 또 다시 확인됐다.

일문 스님 등 비구니스님의 종무행정 진출을 종헌 개정안 심사시 법규위원의 자격을 ‘비구’에서 (비구니를 포함한) ‘승려’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장 보선 스님은 “종헌 규정에 비구니스님에 한정된 것을 비구니스님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은 원로회의 등 공의를 거쳐야 할 곳이 많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투표에서 종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에는 비구니스님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정서가 상당수 반영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종단이 어떤 형태로든 비구니스님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회는 8건의 종헌종법 제개정안 가운데 대부분을 폐기·이월시켰다. 특히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를 통해 5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종헌, 선거법, 산중총회법 등 첨예한 관심이 있던 법안들이 모두 폐기·이월됐다.

총회는 총책직의에 집중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를 미뤘지만, 정법 스님의 말처럼 “법안 심사가 총회의 첫 번째 의무”를 미룬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환경정책 있기는 한가”

조계종 임시총회...기획실·사회부 등 총책직의서 질타 쏟아져

前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기획실·재무부·사회부 총책직의에서 지리산 사도 관련 화염사 토지사용 승인건에 대해 발언했다. 스님의 질문 요지는 사도 관련 조계종 입장과, 종무회의서 화염사 토지사용 승인을 조건부 승인하에 대한 절차상 하자

와 교역직스님의 책임 추궁 등이다. 법규 스님도 “환경위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화염사 토지승인건을 강행했다. 현재 환경위원 일괄 사태는 집행부가 조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총책직의에서 종무회의에서 자신은 지리산 사도 건설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최소한의 파괴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민에 대한 민원, 당해 사찰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경 스님은 “기획실장스님이 멧머리하게 케이블카를 찬성했다고 밝히는 것은 조계종에는 국립공원 보존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개정선거법 통과 바랬지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씨넷)는 제189회 조계종 임시중앙총회 개최 전날인 3월 26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선거법 제개정은 자성과 쇄신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제189회 임시중앙총회에서는 선거법이 다루지지 않았다. 사진은 불씨넷 회원들이 총회가 열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社團法人 大韓佛教 宗團總聯合會 任員 改編 및 會員宗團 加入 公告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는 1984년 故 서경보 세계초대법왕 일봉 큰스님께서 창회한 이래 1994년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로 확대 재창회한 이래 1백여 종단 단체의 참여로 발전하고 활동해 오면서 그동안 매년 2회씩 연합법회를 통해 성도재일, 출가재일, 열반재일은 물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단일교단으로써의 단결과 승려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진력해 한국 최대의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원종단과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법인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각 종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앙망합니다.

- 참가방법 : 우편접수 또는 팩스, 전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적극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종단 및 단체가입 또는 지부설립)
- 참가자격 : 현재 설립운영 중인 각 종단 및 불교관련 신행단체 또는 사회사업단체
- 접수처 : 서울 은평구 녹번로 6가길 7호 전화 02)358-6641-3 / 팩스 02)358-6643
- 각 종단 업무대행 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제 2012-33호

총재 의륜 회장 청운 합장